



요셉의원



2016년 10월 제 89호

<http://www.josephclinic.org> | 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이문주 신부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daum.net

‘겸손한 봉사’로 요셉의원의 사명 구현

이문주 원장신부, 개원 29주년 미사 강론 통해 강조

요셉의원 개원 29주년 기념미사가 8월 29일 오후 5시 병원 3층 경당에서 직원과 봉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문주(프란치스코) 원장신부의 집전으로 경건하게 봉헌됐다.

이 원장신부는 특별강론을 통해 29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묵묵히 헌신해

온 병원 소속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한 세대 30년을 정리해 가는 시점에서 ‘겸손한 봉사’와 ‘사명의 자각’을 강조했다. 이 원장신부는 먼저 “오늘은 요셉의원이 문을 연 날이고 세례자 요한이 돌아가신 날”이라며, “요셉의원과 세례자 요한의 공통점은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꾀없이 자기 할 일을 해 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겸손한 봉사’야말로 바로 요셉의원의 뿌리임을 재확인한 것.

이 원장신부는 “고 선우경식 원장의 뜻에 동참해 봉사하러 오신 여러분이



요셉의원 개원 29주년 기념미사에서 특별강론을 하는 이문주 프란치스코 원장신부

초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쑥쑥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며, “그러나 위로 커가면서 관심을 받다 보면 자칫 교만과 착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우리 모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신부는 이어 각자 사명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곧 희생을 통한 사랑의 구현으로서, 이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 제공’이란 요셉의원의 사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요셉의원은 1987년 8월 무료 자선

의료기관으로 개원한 이래 지난 9월 말까지 노숙자와 행려자, 외국인 근로자 등 가난한 환자 61만8667명을 진료했다. 또 2013년 1월 마닐라에 설립한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무료 진료와 함께 급식(월평균 5000명)과 장학활동(62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같은 공로를 인

정받아 대통령 포상인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3년 버티기 힘들다’는 무료병원이 30년 가까운 나이테를 쌓아온 것은 그동안 요셉의원을 믿고 후원해 주신 8000여명의 후원자와 600여 봉사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개원 30주년을 앞두고 본원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이 원장신부는 “환자들을 위한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자활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9호
주요
소식



2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3 쪽방촌 향기



4 병원 소식



5 환자 스토리



8 요셉의원 후원 안내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필리핀 요셉의원 국내 모금활동 순풍 ‘정성어린 후원 동참에 큰 감사’



목5동성당 모금미사에서 강론을 하고 플루트를 연주하는 장경근 신부. 사진 왼쪽은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이문주 원장신부와 장신부, 최영식 신부

필리핀요셉의원의 후원금 모금활동이 국내 주요 성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필리핀요셉의원에서 사목 중인 장경근(안드레아) 신부는 10월 10일 귀국 후 서울 목5동성당과 남대문시장 성당, 길동성당, 방배4동 성당 등을 돌며 신자들에게 현지민들의 어려운 실상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도움을 호소했다.

장신부의 모금활동에는 필리핀요셉의원의 토대를 닦은 최영식 신부와 서울 요셉의원 이문주 원장신부도 동참해 ‘요셉의원 공동체’ 차원의 지원을 펼쳤다.

장 신부는 10월 16일 첫 번째로 방문한 목5동성당 미사에서 “선배 신부님들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면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음치라서 노래는 못 하고 대신 플루트를 연주하겠다”고 말했다. 장신부는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가 작사한 ‘아무 것도 너를’ (김충희 작곡)이란 명곡을 연주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연주를 들은 한 신자는 장신부에게 메모 편



요한성당 루카회 성금으로 설치한 필리핀 요셉의원 방수 차양막

지를 보내 “지금까지 들은 연주 중 최고의 솜씨”라며, “아들 가족 4명과 딸 가족 4명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합해 열 명의 후원금을 낼 테니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목5동 성당에서는 지난 4월 말 박광원 주임신부와 사목 위원회가 직접 필리핀요셉의원을 방문해 주변 마을을 둘러 보기도 했다. 장 신부는 “당시 열악한 모습에 마음 아파 하시던 일행이 귀국 후 신자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모금활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했다.

한국서 지원한 의류 현지민에 나눔



필리핀요셉의원은 지난 6월 서울 노원성당 신자들이 모아 보내준 의류 중 일부(약 4000벌)를 병원 인근 주민들에게 배분했다. 병원측에서는 1인당 다섯 장의 쿠폰을 나눠주고 쿠폰 한 장당 원하는 옷 한 가지씩을 선택해 가져가도록 했다. 노원성당에서 보내준 나머지 의류와 동대문시장성당 신자들이 보내준 새옷(성인용과 어린이용 의류와 어린이 신발)은 11월 경부터 순차적으로 필리핀에 보낼 예정이다.

요한성당 루카회 성금으로 결핵약 구입·시설 개선

지난 8월 분당 요한성당 의료봉사 모임인 루카회가 현지 의료봉사 후 후원금으로 내놓은 10만페소(약 250만원)가 필리핀 현지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였다. 필리핀요셉의원에서 사목하고 있는 장경근 안드레아 신부는 “9월 달에 동이 난 어린이 결핵약(사진)을 구입해 1년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2층과 연결된 다리 위에 방수 차양막(사진)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요셉의원 8월~9월 신규 후원회원

금성호 금 은 마리아 비타민엔젤스(주) 송용섭 양은경 이용우 이준호 장영태

2016년 8월~9월 필리핀 요셉의원 - 환자 진료 1,825명, 무료급식 8,822명

쪽방촌 향기

‘테레사 효과’를 아시나요

봉사자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은총 : *Helper's High!*



요셉의원에 성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 몸소 오셔서 진료봉사하시는 의료인 여러분들, 힘든 일 마다 않고 이일 저일 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테레사 효과’가 하느님의 강복 속에 피어나 돕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짐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김성동

요셉의원 치유인문학 교실 전임강사
전 경일대 총장, 오하이오주립대 철학박사

199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대 맥컬랜드(David McCalland)교수는 하버드 의대생 132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대상자들의 타액에 대해 1차 면역력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들에게 두 시간 동안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 일대기 비디오를 보여준 후 다시 타액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쁜 병원균이나 나쁜 세포를 죽이는 좋은 면역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Immunoglobulin) A’가 평균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세 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보고서의 제목을 ‘테레사 효과(Teresa Effect)’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실험대상 학생들이 남의 봉사내용을 간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맥컬랜드 교수는 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A: 무보수(無報酬) ●B: 정상 보수의 1/2 ●C: 정상 보수 전액을 받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봉사활동 전후 대상자들의 타액 속 면역항체 변화를 비교한 결과, 무보수 그룹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B그룹이 약간 상승, C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는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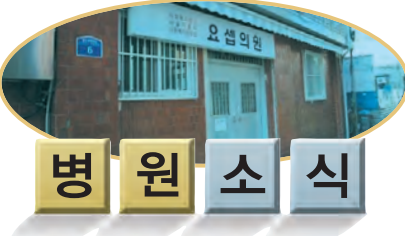
미시간대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Stepani Brown) 교수는 볼티모어에서 5년 동안 432쌍의 장수(長壽)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 이들 중 여성의 72%와 남성의 75%가 아무런 대가(代價) 없이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 “남을 위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두

배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레사 효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Helper's High(돕는 자의 기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줌으로써 느낄 수 있는 고도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서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Allan Luks)가 처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행동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고 두뇌를 활성화하여 정신적인 효과나 기분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고조된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행자에게 보상으로 면역항체를 증가시켜 오래 살도록 사람의 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치를 해 놓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원에 성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 몸소 오셔서 진료봉사하시는 의료인 여러분들, 힘든 일 마다 않고 이일 저일 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테레사 효과’가 하느님의 강복 속에 피어나 돕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짐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그리고 치유인문학 교실을 열어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숨 고한 의미를 찾도록 봉사하고 있는 필자에 게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알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울 노들담 교육관에서 직원 및 봉사자 연례피정

9월 3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서울 노들담 교육관에서 요셉의원 전직원과 봉사자들의 연례 피정이 있었다. 21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네 명의 노들담 수녀님들이 지도자로 참여해 실천교리를 바탕으로 한 나눔 형태로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먼저 살아온 삶과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봉사의 소임을 맡은 데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 후 성체조배를 통해 흐트러진 마음의 갈래를 추스려 보고, 장소를 바꿔 진행한 자체 프로그램에서는 '친절'을 주제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 병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토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튿날 오전에는 '말씀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 형태의 도자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자신의 삶에 건주어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도수녀님의 가슴을 울리는 회개 이야기에 이어 점심식사 후 이문주 원장신부의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드리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물과 육개장 '추석 나눔'에 218명 참석

본원에서는 추석을 앞둔 9월 8일 노숙자와 행려자 등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추석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병원 식당에서 따뜻한 육개장을 준비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이들에게 양말, 팬티, 두유, 식혜, 사과 등을 넣은 선물



꾸러기를 전달했다. 이번 추석 나눔에 병원을 찾은 이는 모두 218명. 추석 연휴에는 '목동의 집'에서 만든 송편과 쌀, 옷 등 선물꾸러기를 30개 정도 마련해 영등포 공원 주변과 병원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배포했다.

양천성당에서 '자비의 회년' 후원금 전달

10월 6일 양천 성당(주임 윤일선 신부)에서 본당 신자들이 모은 후원금 266만8910원을 본원에 전달했다. 양천 성당은 올해 '자비의 회년'을 맞아 매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후원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네 번째로 요셉의원을 선정했다. 서경자(율리안나) 양천성당 사목회장은 고 선우경식 원장 기념실에서 가진 전달식에서 "본당 신자들이 커피나 담배 등의 기호품을 줄여 후원금을 모았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요긴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문주 원장신부 영명축일 및 팔순 축하

10월 4일 이문주 원장신부의 팔순과 영명축일(프란치스코 보르지아)을 맞아 30여명의 직원과 봉사자들이 병원 식당에 모여 떡케이크를 함께 나누고 이 원장신부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 원장신부는 인사말에서 "프란치



스코 교황님은 생신 때 작은 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여러분의 선물은 훨씬 큰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교황님의 모범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셉의원 설립자인 선우경식 원장 선종 후 8년째 요셉의원을 이끌어오고 있는 이 원장신부는 취임 당시 2500명 선이던 회원 등록회원 수를 현재 8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내부 화합을 지향하면서도 병원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박찬순 후원회장,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지난 5월부터 요셉의원 후원회장을 맡게 된 박찬순(그라시아) 회장이 이문주 원장신부의 영명축일과 팔순 축하를 겸해서 본원을 찾았다. 10월 4일 병원 소속원들과 저녁미사를 함께 드린 박회장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후원회장에 앉혀 지금도 몸돌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요셉의원을 열심히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문주 원장신부와 성서백주간으로 인연을 맺은 후 본원 성서백주간 봉사자로도 활동했었다. 박회장은 "요셉의원에서 성서백주간 공부를 함께 하며 훌륭하신 고



선우경식 원장을 처음 뵈게 되었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봉사자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 큰 기쁨이었다"고 회상했다.

신학생 봉사자였던 양현우 신부 미사 집전

요셉의원이 지난 1997년 5월 신림동에서 영등포 현재 위치로 옮겨올 당시 2년여 동안 봉사활동을 했던 양현우(바오로) 신부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귀국해 9월 1일 병원 경당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이날 미사에는 양신부



와 함께 내한한 잠비아의 스티븐 카팔루 신부도 집전자로 참여했다. 양신부는 지난해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문주

원장신부에게 잠비아어 성경 발간 지원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번에 잠비아의 3개 언어 성경을 교정, 감수할 수 있는 스티븐 신부가 동행하게 됐다. 양신부는 "요셉의원에서 봉사할 때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신 고 선우경식 원장님의 호의를 잊을 수 없다"며, "선무원장님은 신학생들이 올곧은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 환자 스토리

영등포 쪽방촌 주민 조광희씨

주택 마련 위해 한달 20만원씩 저축



쪽방촌은 생각보다 월세가 비싼 편이다. 두 사람이 빠듯하게 누워 칼잡을 잘만한 공간이 월 20만~30만원씩 한다. 아마 보증금이 없기 때문인 성싶다. 영등포 쪽방동네에는 대낮에도 혼자 술 먹고 누워있

거나 두 서너명씩 모여서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삶의 무게를 술로 잊어보려는 심산일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의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대오각성이라는 거창한 수식을 붙이지 않더라도 삶의 언저리를 좀 가다듬어 가려는 노력이다. 영등포역 주변 쪽방촌에 사는 조광희 씨(65)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조씨는 지난 8월 초 요셉의원 직원의 도움으로 담석제거수술을 받고 한달 여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8월 3일쯤인가에 갑자기 배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와서 119를 불러 급히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 심해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원 사회사업팀 직원이 서울의료원에 수속을 해줘서 내시경수술을 받고 6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은 조씨가 입원해 있을 당시 병문안도 가서 위로를 해주었다. 조씨는 요셉의원에 등록된 환자 가

운데 소통이 가장 원활한 축에 속한다. 노숙인이나 쪽방촌 사람 중에는 치과 진료 예약을 해놓고 일언반구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이들이 더러 있다. 전화번호도 없거나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어딘가에 쓰러져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요셉의원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능한 한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저는 혼자서 술 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몇 사람이 어울려 술을 들었다 하면 최하 5일 이상 계속 마셔요. 그러니 몸이 성할 리 없지요. 제가 안 보이면 요셉의원 직원이 방에 찾아와 술 먹지 말라고 야단치곤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술에 찌들게 된 원인을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 일찍 이발기술을 배웠던 조씨는 이발소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겨 5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있는 것 털어 손실을 메우고 목포에서 7년 간 새우잡이 배를 탔다. 이때는 것이 술 실력. 2005년쯤 서울로 올라와 쪽방촌 생활을 하다 알코올 중독으로 여주 세민병원에서 2년 가까이 신세를 지기도 했다. 퇴원 후 진료차 요셉의원에 자주 들렀던 조씨는 병원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며 간단한 허드렛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3년 전에는 병원 원목수녀의 지도로 교리를 배워 사도요한이란 영세명으로 세례도 받았다. '치료 받는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 병원 소속원들과 한 식구 같은 사이가 된 그는 이제 술을 안 먹느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기초 및 장애연금으로 60여만원을 받는다는 그는 매달 20만원씩 저축하며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꿈을 키우고 있다. "통장이 수중에 있으면 술을 사먹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그에게 꿈이 실현될 날은 그리 머지않아 보인다.

♥ 봉사자 코너

의료봉사자 김윤지 전문의 수도원 입회

“기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원에서 의료봉사자로 환자를 진료했던 여의사 한 분이 수도회에 입회했다. 주인공은 2014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2년 간 내과 진료봉사를 했던 김윤지(루갈다) 씨(신장내과 전문의). 김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강원도 양양의 글라루 수도원에서 피정을 겸한 수도자 예비체험을 마치고 9월에 정식 입회했다.

9월 5일 본원 평일미사에 참례하고 의료봉사 감사패를 받은 김씨는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3개월 간 묵상하면서 수도자로서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과 겸손을 좀더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가 이같은 결심을 굳히기까지는 숙고해야 할 점이 많았다. 먼저 10년 이상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전문 의술을 활용하지 않고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뜻인가 하는 점. 여기에 본인의 나이도 있고 부모님도 연로해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런 고민 중에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마침 이문주 원장신부의 주선으로 글라루 수도원에서 수도생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김씨는 “요셉의원과는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미사의 성구처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환자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 후원의 손길

첫 임대료 308만원 선뜻 후원한 신현주 씨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려합니다”

8월 중순의 어느 날 요셉의원 4층 사무실로 낮이 익은 여성 한 분이 들어왔다. 후원금을 접수하면서 “이번에 첫 건물임대료를 받았는데 먼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할 것 같아 가

져왔다”며 308만원을 내밀었다. 자세히 보니 현재 요셉의원 치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는 신은주(아네스) 씨였다. 신씨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중 일부라도 봉헌을 안 하면 양심불량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끔 기부를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원봉사 경력도 꽤 오래된 분이였다. 결혼 전에는 장애 어린이들을 가르쳤었고 결혼 후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곳 성당의 총구역을 맡아 현지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한동안 서울 중곡동 종합복지관 관장을 맡으셨던 수녀님을 도와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름로는 열심히 일을 거들어들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하상복지관에서 생활보호자나 가난한 당뇨환자들을 위해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크건 작건 도움을 주는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요.”

신씨의 남편은 국내 큰 재벌그룹 계열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급여 일부를 꾸준히 모아 얼마 전 작은 건물 하나를 구입했고 이번에 첫 임대료를 쾌척하게 된 것. 가끔 임원 부인들 모임에 참석해 보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한다. 요셉의원 후원회를 통해 봐도 사실 알게 모르게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부모가 욕심쟁이 자식에게 많이 주겠습니까. 저는 욕심쟁이 자식이 안 되려고 가능한 대로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려 하고, 두 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 용돈 모아 기부금 쾌척한 부부

“가난한 사람 위해 좋은 일 많이 하세요”

9월 6일 본원 사무실을 찾아온 부부는 아들이 생활비에 쓰라고 준 돈을 모아서 후원금으로 내고 싶다며 수표 한 장을 건넸다. “작은 돈”이라며 내놓은 수표는 1000만원짜리. 안과의사인 아들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다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 개원을 한 후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었다. 부인은 4,5년 전 매스컴을 통해 요셉의원이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 아들에게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해 용기를 내게 됐다고 한다. 아들 이름으로 기부를 한 부부는 “좋은 일 많이 하시라”며 충충히 문 밖을 나섰다.

♥ 후원 및 기증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8월~9월)

강영은 강지연 고경자 고영의 곽 창 김기수 김기현 김미자 김수민 김시후 김영석 김민태 김재필 김재희 김종필 김준곤 김호숙 류수정 류지석 문미라 박경자 박서영 박수정 박은성 박종미 박태영 송정식 신중남 신현주 심상화 오병무 유세화 유혜인 유 현 윤인자 이경선 이남숙 이동현 이명호 이정우 이종백 이채원 임호선 장영태 장현진 전선진 전수진 전진여 정 재 정호진 조영숙 최민이 최영은 하경화 한소현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근로복지연구원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 김경숙 레지나 : 생수 7박스, 두유 17박스 ♥ 김로사 : 사탕 1박스 ♥ 김정호 마티아 : 빵 1박스, 고구마 1박스 ♥ 대방동성당 유치원 : 과일 3박스, 고구마 3박스, 야채 2박스 ♥ 박근혜 대통령 : 인삼 1박스 ♥ 박상철 : 사과 15개, 포도 6송이 ♥ 백순철 : 쌀 20kg ♥ 보라매병원 : 쌀 60kg ♥ 서재욱 수녀 : 밤 1박스 ♥ 성공회 : 빵 2박스 ♥ 아름다운 공동체 : 쌀 200kg ♥ 양재동쌀창고 : 쌀 680Kg ♥ 영등포우체국장 : 햄 세트 1박스 ♥ 오션디 : 구운 계란 6판 ♥ 우리은행 영등포 중앙금융센터 안병국 : 멜론 1박스 ♥ 이랜드 : 과일 1박스 ♥ 이성실 : 떡 14박스 ♥ 이수연 : 빵 3박스 ♥ 이영아 : 감자 2박스, 고구마 5봉지 ♥ 익명 : 2박스 ♥ 임옥순 막달레나 : 김치 10박스 ♥ 전순임 세실리아 : 고추장 14박스 ♥ 정해준 : 참외 5상자 ♥ 착한 과일 : 바나나 2박스 ♥ 친절한 봉화군 : 쌀 100kg ♥ 코스트코 : 빵 6카트 ♥ 파리바게트 : 빵 62박스, 케이크 11개 ♥ 푸드뱅크 : 빵 16박스, 떡 5박스, 바나나 5박스, 음료수 6박스, 과자 9박스, 화과자 3박스, 주스 2박스, 빵 1박스, 쇠고기덮밥 2통(100인분), 초콜릿 18박스 ♥ 학교법인 가톨릭사제단 : 과일 2박스 ♥ 한사랑공동체 : 두부 1박스 ♥ 함께 하는집 : 라면 5박스, 주스 5박스, 빵 9박스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 김경숙 레지나 : 타올 1박스 ♥ 동대문시장 성당 : 옷 2박스 ♥ 목5동성당 : 신발 1박스 ♥ 유수산나 : 옷 1박스 ♥ 윤인자 : 옷 3박스 ♥ 이석준 : 신발 1박스 ♥ 이종환 : 옷 1박스 ♥ 익명 : 신발 2박스 ♥ 전선진 : 옷 6박스 ♥ 화곡본동성당 : 옷 1박스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 남촌재단 : 영상의학 판독 모니터 1세트 ♥ 박선신 세실리아 : 10만원 상당 의료소모품 ♥ 비타민 엔젤스 : 나눔비타 외 1종 ♥ 온누리약국복지회 : 시스콜린 외 6종 ♥ 의정부성모병원 : 카르나 외 9종 ♥ 인간의 대지 : 원탁 외 1종 ♥ 제일한방(주) : 한방파프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0종 ♥ 흥혜영 : 목발 1세트

+ 집기 및 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 구속주회 : 비누 2박스 ♥ 김경숙 : 수건 1상자 ♥ 석경애 : 내비게이션 1대 ♥ 성공회 : 방향제 3상자 ♥ 푸드뱅크 : 방향제 4박스 ♥ 함께 하는집 : 염색약 5박스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나오신 분

- 의사 : 이동주(한방과) 유명열(통증클리닉)
- 약사 : 최성희
- 간호사 : 배진영 이은영
- 음악치료 : 이병진희 임성희 윤정인 배미정 이성혜 이동근
- 신학생 현장체험 : 김찬호(국제선교회 9/9~) 김여옥(서울대교구 10/10~12/31) 이용준(국제선교회 10/11~)
- 일반봉사 : 양희영 정소영 박서진 김수완 이현철 정진우 허수빈 장윤정 이지희 김유민 김대성 박정량 이미애 김정민 나현홍 김로사 송채영 허수민 최유진 신병윤 노도희 양희현 이해주 김석진 오채린 여재호

+ 우리 병원에서 지원한 기관

- ♥ 글라렛 수도원 ♥ 김호동 ♥ 김중문 ♥ 노를담 수녀원 ♥ 목동의 집 ♥ 박경애 ♥ 밤바 ♥ 사랑의 까리따스 공동체 ♥ 사랑의 집 ♥ 수선화의 집 ♥ 양양 성글라루 수도원 ♥ 엄동선 ♥ 예수의 작은 자매회 ♥ 우리 물터 ♥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 인천 지혜의 샘 ♥ 작은자매 관상 수녀원 ♥ 정승애 아네스 ♥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진료) ♥ 쪽방 나눔 ♥ 한사랑공동체 ♥ 한울타리 공동체 ♥ 함께 하는 집 ♥ 햇살공동체 ♥ 허정석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요셉병원 월별 환자 진료 수	
2016년 8월	2,097명
2016년 9월	1,745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

618,667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마태 25:40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가까이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회원 가입방법

1. 은행 자동이체 후원 신분증과 도장·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가
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
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구)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2. 지로납부 후원 후원 담당자에게 전화(070-4688-3416)로 성명·주소·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지
로용지[지로번호 7522950 예금주:(북)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직접 방문 후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 4층 병원 사무실(총무팀)로 직
접 방문하셔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필리핀요셉의원을 도와주실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005-201-940450	(북)서울가톨릭요셉의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 구내

♥ 각종 모임 및 서비스 안내

+ 식사나눔



시간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이·미용서비스



시간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환관

+ 목욕서비스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 단주모임(A.A모임)



시간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및 인문학강의



시간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 법률상담



시간 1, 3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휴게실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